☞ 17면에서 계속

말거나 나는 그저 주인공만 찾으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별적인 마음이지 포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는 부처님도 내 한마음 속에 계시니까, 삼정례를 깍듯이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뜻과 법과 행에 같이 한마음이 된다는 뜻에서 삼정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는 것은 우리 산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향을 사르는 것은 영령들의 양식을 말하고, 또 공양미를 올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한그릇을 놓고 중생들을 다 먹이는 태양과 같고, 다 먹이고도 되 남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뭐, 법당에 안 가도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 형상도 자기요, 마음도 자기요, 생명도 자기요,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내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절에 왔으면 벌써 예를 지켜야 하겠기에 법당에 올라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법당에서는 누가 향을 먼저 꽂았느니 나중 꽂았느니 이런 거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불과 그 촛불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의 불이 있고, 물질의 촛불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그 불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성이라면, 남이 먼저 켰어도 또 다시 켜려고 싸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 흡집 가게, '내가 켜놔야지.' 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그 불이고, 그 불이 그 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은 바로 우리의 한마음이지.' 하고서 불을 켜놨다 한다면 전체 신도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앞에 오는 거를 막지 말고, 앞에 오는 거를 싫다 하지말고, 가는 거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지혜가 모두 탁 터져서, 사방이 툭 터지고 지붕이 없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대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싫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언짢다는 것을 떠나라 하는 것은, 항상 다가오는 거를 마다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바늘을 벽에다 꽂으면 꽂은 대로 빼면 빼는 대로, '이래서는 융통성이 없어서 살수가 없는 겁니다. 빼는 건 빼는 거고, 끼는 건 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有)의 물질 세계에서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무(無)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합쳐서 작용을 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법당에서 예불 모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모아서 우리 마음들이 거기다가 한마음으로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의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어야 제대로 관 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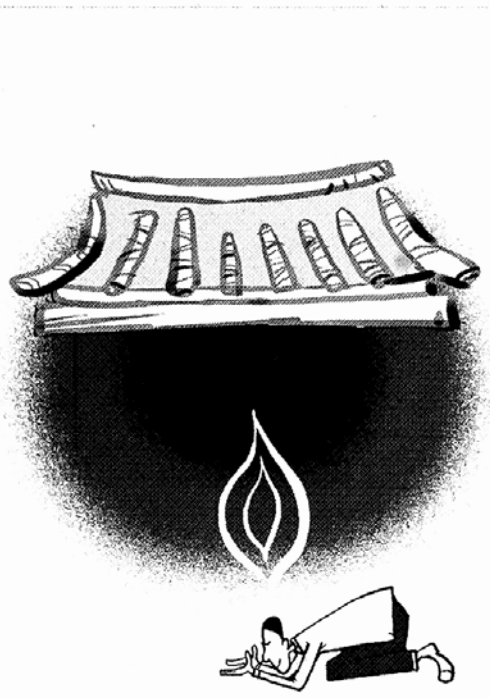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주인공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남자를 원해 가지고 남자애만을 태어나게 하는 게 나중에 그 애들이 커서 꼭 쓰일 데가 많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 중 남자 애들에 비해 여자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짝을 지워 함께 앉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결혼 배우자의 문제나 여성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예전에 어른들 말을 들어 보면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남자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자 애들을 낳으면 그냥 없애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없으니 그 고통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여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여자가 귀하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난폭해지고 외려 망가지는 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자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다 소생시키고 키우는 땅이라고 봅니다. 따뜻하고…, 아버지는 태양을 주고, 물도 주고, 바람도 주지마는, 본래 땅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도 역시 하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죠. 흙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위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태양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등불이 있어서 우리는 아래 · 위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고 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불 모실 때 일체 모아서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해야…

가만히 세상의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애들을 기를 때는 주접이 들지 않게 기르는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기를 때는 애들이 망가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딴 어머니를 얻어도 올바르게 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멍이 가슴에 남아 있기가 쉽죠. 그걸 감수하고 다 자라가지고선 어느 때에 가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풀고 살게 되기도 하지만 자라기 이전에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으로 여자가 아주 적다면 큰 군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여자의 위력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남자가 구걸을 하러 다녀도 툭툭 튕겨야 할 지경일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천대받듯이 말입니다. 똑똑해도 여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여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양면이 똑같이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너무 이쪽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저쪽이 적어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뭐든지 양면을 고루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오색찬란한 빛을 느낄 때

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잠시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오색찬란한 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빛을 보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뜻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오온의 진리가 그대로, 색색가지의 차원이 여러 가지로 주어져서 오색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죠.

가르치느라고 그런 거니까 밖으로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 올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중도에 두면서, 고정되게 두는 게 아니라 중도에 두는 겁니다. 그것도 내 주인공 속에서 전자의, 나오기 이전 과거는 쫓기고 쫓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나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오기 이전 전자의 아비가 지금 현재의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바깥으로 끄달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놔야죠.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아는 건 아는 대로 놓고, 터득을 하는 건 터득을 하는 대로 놓고, 터득은 했을망정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깨달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는 좀더 귀중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꼈다, 또 과정에서 좀더 터득을 했다는 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단계 없는 세 단계가 있다고요. 첫째, 나를 비우기 위해서, 습을 놓기 위해서 보임을 하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했는데, 놨더니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으니깐 내가 세파를 헤치고, 비바람을 헤치고 모든 걸 맞아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놔야 됩니다, 다시.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깨달았다면 나만 깨달은 거지 너와 내가 같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폭을 넓힌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면벽을 한다고 표현을 합시다. 면벽이라고 하는 뜻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숙달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면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다 또 다시 놔 가면서 그것을 숙달을 시키죠. 숙달을 시키는 것은, 나는 내가 죽어서 알았는데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죽어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또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숙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 죽었는데,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같이 내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그 도리를, 즉 나툼을 모른다면 그거는 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한 세 가지의 도랑 없는 도랑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무 사유를 한데 합친 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알아서 자재력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분이라야 열반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배꼽놀이를 할 때 배를 탁 한 번 치면 천하가 울고, 배꼽 한 번 탁 치면 또 천하를 받칠 수도 있고, 한 번 탁 치면 굴릴 수 있고, 또 디딜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것이 모두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한두 가지의 견에 의해서 쓰는 법이 아니니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온 자리에다가 놓아 가시다 보면 내면의 스승이 참 가르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귄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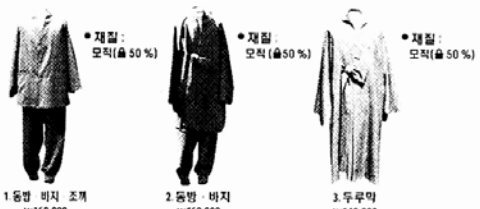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붕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 동방 · 바지 · 조끼 w160,000
2. 동방 · 바지 w160,000
3. 두루마 w140,000
재질 : 모직(울 50 %)

누 비



4. 동방 · 바지 · 조끼 w200,000 / w60,000
5. 동방 · 바지 w220,000
6. 두루막 w1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

잔누비 조끼·동베



7. 서츠 w60,000 / 바지 w70,000
8. 조끼+동베 w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으로 튼튼하게 누빔
재질 : 면마고 활동적인 고급 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옆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헤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산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멸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